

# “아직 마스크 해제 아닙니다”... ‘노 마스크’ 시비·혼선 잇달아

정부, 신중한 검토 후 마스크 해제 발표  
인수위, 공식 취임 후 해제 시점 발표  
내일 발표에서는 현행 유지 전망 높아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해제로 오인  
“최근 길거리에서 노 마스크족 많아졌어”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까지 허용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거리두기 해제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혼동해 ‘노 마스크’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들을 마주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동시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마스크는 개인의 감염을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 해이까지 이어질 부정적 영향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 이후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 출범 한 달 내로 방역 안정화를 모니터링하고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겠다”며 “실외 마스크는 벗되 실내 건물에 출입할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같은 그런 판단은 5월 하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29일로 예정된 현 정부의 실외 마스크 발표는 현행 유지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시민들이 거리두기 해제와 동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고 오인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직장인 이모(34)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더워서 마스크를 벗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길거리에서 노 마스크족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며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일요일인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대학생 박모(24)씨는 “한강이나 산책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전과 비교해 확실히 마스크 착용에 대해 관대한 것 같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노마스크 혼동이 시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이모(28)씨는 “특히 저녁 시간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며 “처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시

비가 붙은 적이 있어 그 뒤로는 빨리 계산해서 내보내는 편이다”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조속히 개인 자율에 맡겼으면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 수원에 사는 박모(36)씨는 “결릴 사람들은 거의 걸렸고, 확진자 수도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감염 확률이 낮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가로운 곳에서는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뉴스

## 안철수 “실외 마스크 해제 5월 하순 판단...실내 의무화는 지속”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여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했다.

안철수 인수위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언제 벗는가가 제일 궁금할텐데, 5월 하순 정도에,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어느 정도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 마스크는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판단을 5월 하순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거의 일상으로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 위)는 권고한 것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한 “집합금지업종도 카페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카페 전체를 닫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며 “밀집·밀폐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의 차이점으로는 “말로만 밀집·밀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 기준에는 적용하지 않아 카페에선 먹을 수 없고 음식 파는 쪽에서는 와글와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새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기준만 지키면 업종 상관없이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환기”라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환기설비 기준을 만들고, 만약에 환기 설비를 한다면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취약계층 대응 방안으로 “검사 당일 확진이 나오면 무조건 팩스로비드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고위험 취약계층 사망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 후유증, 이른바 롱코비드 대책으로는 “아직 (롱코비드) 데이터가 모여있지 않다. 그래서 1만명 정도 규모로 해서 연구하고, 의료기관 지정해 치료 가이드라인도 만들어가야 한다”며 “방법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백신 이상반응 대책으로는 “입증 책임을 본인이나 국가가 하도록 하겠다.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수준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 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사망 원인 알 수 없는 돌연사도 일정 지원하겠

다”며 “120일 이내에 피해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치료제 확보 방안으로는 “현재 팩스로비드 100만6000명분 정도 있다. 이전 가솔에 만약 또 확진자가 폭증하면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100만9000명분을 더 도입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 50만명분, 내년 상반기 50만명분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밖에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감염전문병원을 지역마다 두고 콘트롤타워 중앙감염전문병원을 두는 것”이라며 “고(故) 이경희 회장이 7000억 원을 기부했는데 그중 5000억원은 중앙감염전문병원 건립에 쓰고 나머지 2000억원은 연구에 쓰게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보건의료분과가 총 11차례 회의를 거쳐 만든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방역,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비, 신종 변이 출현 선제 대응을 목표로 설계됐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 군 등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을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코로나특위의 또다른 분과인 민생경제분과는 오는 29일 구체적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한다.

뉴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유통경쟁 및 실연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디기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셨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